

광양시 진상면, 독거노인에 편의시설·성인용 보행기 지원



광양시 진상면은 지난 11~13일 3일간 독거노인 32개 가정에 화장실 안전바와 미끄럼방지 매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했으며, 전달행사는 13일 진상면사무소에서 개최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 후원...진상면청년회 참여 32개 가정에 화장실 안전바·미끄럼방지 매트 등 설치

지원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에서 1,000만 원 상당을 후원하고 진상면청년회 회원 1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는 매년 어버이날 진상면 청년회를 통해 경로 위안잔치를 후원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을 계획했다. 지원대상 가구는 진상면에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독거노인 가정으로, 생활지원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진상면청년회는 해당 가정에 양변기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해 낙상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줄여 편의를 증진하도록 지원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세대별 1대씩 무상 지원했다. 지원을 받은 한 어르신은 “바닥이 미끄러운 화장실에서 넘어지지 않을까 항상 불안했는데 튼튼한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렇게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빈번한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미란 진상면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준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속적으로 생활이 불편한 이웃을 살피고 이웃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기자

함평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눈길

도배·장판 등 주택 수선 지원

함평군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군 관계자는 “농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선유지급여사업, 빈집철거지원사업, 주택개량사업,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농촌집고쳐주기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사업비는 9억여 원이 투입된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주거급여 대상자 75가구에 대해 도배, 장판 등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과 농촌지역 무주택자로 연면적 150㎡ 이하 건축 시 최대 2억 원까지 용자를 지원하는 주택개량사업은 올 초 신청 및 확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경사로, 계단 및 안전봉 등이 설치 완료된 모습

정된 100여 동과 50동에 대해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김광훈기자



영광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맞춤형 드론 교육'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에서는 최근 첨단 미래 산업의 중심에 있는 드론의 산업적 활용 증대에 따른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 통합 운용자 과정을 2021년 장애인 맞춤형 직업재활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드론 자격증 교육을 위하여 호남국제드론사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영광군이 장애인 취업률과 직업훈련 실효성을 높이고자 올해 도입한 공모사업에 영광군지회가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

어 직업훈련이 가능한 만 40세이상 등록 장애인 9명을 선정하여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7월부터 하루 8시간씩 2주에 걸쳐 교육을 수료할 예정이다. 교육은 중증 장애인 5명, 경증장애인 4명 등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론 교육을 시작으로 드론 비행 시뮬레이션, 비행 실습 등 초경량 비행 장치 무인 멀티콥터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내용으로 이뤄진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 시종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차 정기회의 개최



영암군 시종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0년 지역특화사업 정산·2021년 지역특화사업 계획 논의

최근 시종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협의체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어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지역특화사업 정산 및 2021년 지역특화사업 계획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랜만에 모인 협의체 위원들은 복지사 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자며 의견을 모았고 2021년 지역특화사업으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긴급 구호비 지원사업, 90세 이상 어르신 장수선물 전달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영암=조대호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